(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44 (2019. 4.), 254-265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19.4.44.254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번역 논문>

중국어 옛 성서의 디지털화(1950년대 이전)

사이먼 웡(Simon Wong)*
김석주 번역**

1. 일반적인 소개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는 8세기 곧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가 건립된 7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어 성서는 1700년대에 번역된 장 바세(Jean Basset) 신부의 미완성 신약전서이다. 이 바세 역본은 1822년 처음 완성된 개신교 성경전서인 마쉬만(Joshua Marshman)-라싸르(Johannes Lassar) 역본보다 100여 년이 앞선 것이다. 지난 300년 동안 모든 기독교 종파 혹은 교파에서 발간한, 문리역(文理譯, 문어체/경서체) 성서이든 관화역(官話譯)[1] 성서이든, 중국어 성서는 모두 80여 종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성경전서가 있다. 이 가운데 42종이 완성된 (혹은 거의 완성된) 신약전서 혹은 성경전서이고, 그 대다수(약 33종)가 1950년대 이전에 발간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대부분의 성경 본문은 단지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일반 대중이 접근하여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물론 너무나 유명한 모리슨(Robert Morrison)-밀른

---

* Simon Wong, "Digitization of Old Chinese Bibles (pre-1950s)", *The Bible Translator* 68:1 (2017), 11-19.

** Baylor University에서 중국근대사와 중국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음.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아시아교회사 교수. sukjookim@puts.ac.kr.

1) [역자주] Mandarin Chinese란 말은 시대에 따라 "북방 관화"(명말청초), "관화"(성청·만청), "백화체"(5·4운동 이후)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8세기 초부터 1950년대까지를 모두 아우른다는 넓은 의미의 일반 명칭으로 "관화"로 번역하였다.

(William Milne) 역본(1823)[2] 역시 그러하였다. 그런데 디지털성서도서관(이에 대해서는 웹페이지를 참조하라. https://thedigitalbiblelibrary.org/home/)에 의해 조성된 후원금 덕택에, 중국어 옛 성서(聖書)의 성경 본문을 모두 디지털화한다는 목표로 바로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2014년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어 성서 번역사 연구의 권위자들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자문위원들은 조지 막 박사(George Mak, 홍콩침례대학 학술연구 조교수), 춘리 박사(Chun Li, 홍콩 베델신학대학 학술담당 학장), 케니 왕 박사(Kenny Wang, 웨스턴시드니대학 언어 및 번역학 전임강사) 등이다.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인지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제1단계로 여섯 종의 역본 성경 본문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2016년 4월 디지털성서도서관에 제출되었고, 연이어 이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제2단계가 시작되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종합 목록(도합 22종)이다(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은 모두 개신교 역본이다).

제1단계 (도합 3,733,519자)

북경어 역본: 관화역(1878)

정교회 역본: 문리역(신약 및 시편, 러시아 정교회, 1910)

중국어 심문리역 화합본(1919)

중국어 천문리역 화합본(신약, 1902)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1919)

왕(WANG Yuen-det) 역본: 관화역(신약, 1933)

제2단계 (약 8,000,000자)

바세(Jean Basset) 역본: 문리역(미완성 신약, 가톨릭, 1707)

프와로(Louis de Poirot) 역본: 관화역(외경이 포함된 미완성 성경전서, 가톨릭, 1803), 후원금 문제로 보류된 상태

마쉬만-라싸르 역본: 문리역(1822)

모리슨-밀른 역본: 문리역(1823)

대표본: 문리역(1852)

브리지만(Elijah C. Bridgman)-컬벗슨(Michael S. Culbertson) 역본: 문리역(신약, 1859; 구약 일부분, 1862)

남경어 역본: 관화역(신약, 1857)

---

2) [역자주] 신약은 이미 1813년에 나왔다.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역본: 문리역(신약 및 시편, 1886)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역본: 관화역(신약, 1892; 시편, 1907)
쉐레쉐브스키(Samuel I. J. Schereschewsky) 역본: 문리역(1902)
샤오(HSIAO Ching-shan) 역본: 문리역(신약 주석 성서, 가톨릭, 1922)
시든스트리커(Absalom Sydenstricker)-주(ZHU Baohui) 역본: 관화역(신약, 1929)
주(ZHU Baohui) 역본: 관화역(신약 주석 성서, 1936)
리(LI Shan-fu) 관화역(신약, 가톨릭, 1949)
럭(Heinrich Ruck)-정(Zheng Shoulin) 역본: 관화역(신약, 1958)
시어도어 샤오(Theodore HSIAO) 역본: 관화역(신약, 1959/1967)

여기 대부분의 성경 본문은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인하여 처음으로 디지털 형태로 공개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에 소개된 목록에 사용된 대부분 성서 역본들의 명칭은 번역자들의 이름에 근거하였다. 발간 당시의 공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이유는 대부분의 성서 역본들이 영어 성경처럼 공식적으로는 "성서"라고 간단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된 모든 성서 역본에는 (중국어) 서문을 제공한 다음, 그 역본의 간략한 번역 역사 및 관련된 디지털화 과정을 서술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1) 아직까지 저작권 문제가 논란 중인 우(John Wu Chinghsiung, 1899-1986) 역본인 신약 및 시편 번역 성서를 제외한다면, 1950년대 이전의 모든 가톨릭 중국어성경, 즉 바세 역본, 프와로 역본, 샤오 역본, 리 역본 등이 이 디지털 프로그램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바세의 신약성서는 (비록 히브리서에서 멈추기는 했지만)[3]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어 성서번역이다. 잘 알려진 사실로서 이 바세의 역본이 모리슨-밀른의 신약성서 번역(1810년 처음 출간)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쉬만-라싸르 역본의 주요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바세 역본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들이 얼마만큼 바세 역본을 활용하였는지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 예수회 사제인 루이 프와로의 역본(1803)도 특별히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번역이다. 프와로 역본은 첫 번째 가톨릭 완성본 성서인 소위

3) [역자주] 바세는 신약성서를 복음서부터 시작하여 히 1장까지 번역하였다.

‘사고성경’(思高聖經)이 1968년 출간되기 이전까지는, 비록 일부 예언서가 번역되지 않은 미완성 성경전서이었지만, 가장 방대한 성경이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앞선 것을 제외하더라도 프와로 역본의 가치는 이것이 문리체 중국어가 아니라 (관화체 중국어와 비슷한) 당시 “북경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현대 중국어 독자들도 이 역본을 여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역본은 중국어 번역사에 있어서나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 놀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 프와로 역본은 오랜 세월 동안 행방이 묘연하였는데, 2011년 중국 본토 상하이에 있는 지카웨이 도서관(Zikawei Library)[4]에서 발견되었다.

3)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합본” 성서는 1919년에 출간된 공인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을 가리키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본래 (1890년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개신교선교사총회에서 세 종류의 중국어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의하여(당시 표어가 “한 성서 세 번역”이었다) 출간된 모든 성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19세기가 도래하여 이미 중국에서 사용되던 중국어인 심문리 중국어, 천문리 중국어, 관화 중국어 각각의 성서 번역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는 이 세 가지 역본 모두가 당연히 포함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1919)” 성경 본문이 열성 독자들에 의해 이미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에 여기저기 회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되는 번역 본문 중에 정확하게 디지털화된 성경 분문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고문서실에 보관된 역본을 기준으로 이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1919년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사실 이것은 1983년 간행된 판본이다)과 또 당시 성서번역위원회의 번역위원이었던 굿리치(Chauncey Goodrich: 중국 이름 富善) 선교사의 친필 서명이 담긴 1919년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의 복사본과 비교하며 정오(正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4)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에 있어서 전설적인 번역가로 또 여러 별명(“성서 번역자들의 왕자”, “아마도 중국에서 배출한 가장 출중한 성서 번역가”)으로 뚜렷이 기억되는 번역가는 쉐레쉐브스키(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 1831-1906) 주교이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랍비 교육

4) [역자주] 이 도서관은 중국에서 ‘서가회예수회신학원장서루’(徐家匯耶穌會神學院藏書樓) 혹은 ‘서가회천주당장서루’(徐家匯天主堂藏書樓)로 통칭된다.

을 받았으나 후에 기독교로 전향하였다. 또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기독교 신학 훈련을 받은 다음 목사 안수를 받았다. 나중에 상하이의 미국성공회 주교가 되었는데, (북경어 역본의 일부로 포함되기도 한) 그의 중국어 관화역 구약성서 번역(1875)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원고를 작성한 첫 번째 구약성서 번역이었다. 쉐레쉐브스키 주교는 천문리역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안에 몸에 심각한 마비증상이 왔는데, 특히 손가락은 한 손가락을 제외하고 모두가 마비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휠체어에 앉아 한 손가락으로 2,000쪽이나 되는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가 로마자로 음역된 원고를 쓰면, 후에 그의 조수가 그것을 중국어 문자로 바꿔 쓰곤 하였다. 쉐레쉐브스키 주교는 중국어 성서 번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도 성서 번역을 하였다.

5) 산동 지방 출신인 왕(Wang Xuan-chen으로도 알려진 Wang Yuen-det) 목사는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 번역위원회의 번역위원인 매티어(Calvin Wilson Mateer)에게 조언을 하던 중국인 학자였다.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CU-Mandarin)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국인 지식인들이 의미 있는 공헌을 하였음에도, 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서양인 동료들에게 그들 자신의 의견을 조용히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이 출간될 무렵에 왕 목사는 자기 자신의 중국어 성서 역본을 준비하였고, 마침내 1933년에 신약성서를 출간하였다. 왕 목사는 이 신약성서가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본질에 있어서 이것은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에 바탕을 둔 일종의 개정판이라 하겠다.

6) 주(Zhu Baohui)는 본래 시든스트리커(Absalom Sydenstricker, 1852–1931) 목사의 학생이었는데, 방대한 양의 주석과 상호 참조를 곁들인 첫 중국어 주석 성경(신약)을 만들었다. 많은 도표와 다수의 성서 인물 이름의 의미를 밝히는 것 이외에도 신약 그리스어 주제어에 대한 주석적 정보를 136쪽이나 제공하였다. 당시의 중국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진실로 최첨단의 독창적 언어 연구 성과라 말할 수 있겠다. 이 주석 성서는 시든스트리커의 딸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유명한 펄 벅(Pearl S. Buck)의 후원 아래 1936년 출간되었다.

2. 1950년 이전 역본들의 특성

1950년대를 기준으로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연대를 정한 데에는 그것 나름의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의 명시 때문이다. 중국의 법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소멸 시효를 저자의 사망 이후 50년이나 혹은 처음 간행 이후 50년으로 잡고 있다(이 정보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적재산권 담당자인 갈리아니[Inés Galliani]가 제공하였다). 그런데 럭-정 역본(1958)과 시어도어 샤오 역본(1959)을 제외하면, 이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모든 역본들이 1950년 이전에 발간된 것이기에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모든 역본이 공유 저작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중심 디지털화 작업은 '믿음 소망 사랑의 희귀 성서 컬렉션'(이에 대해서는 웹페이지 https://bible.fhl.net/ob/index.html을 참조하라)이 흔쾌히 제공한 스캔된 그림 파일로 진행하였다.

둘째로 195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 정부가 새로운 언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언어 정책의 목적은 관화체를 중국의 통용어로 선포하고 간체 중국어를 표준화함으로써 중국의 문맹률을 크게 낮추는 것이었다. 이에 상응하여 처음에는 1956년에 그리고 다음에는 1964년에 표준화된 간체가 공시되었다. 또 중국 정부의 모든 간행물에 이 간체를 채택하여 1950년대 이전까지 사용하던 전통적인 번체(혹은 더 적절하게는 지금까지의 '표준 문자 중국어')와 구별시켜 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1950년대 이후에 간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간체는 1950년대 이전에도 일부 통용되고 있었고, (다음에 논의되겠지만) 1950년대 이전 성경에도 종종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1950년대 이전의 간행물은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세로쓰기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런 방식이 모든 중국어 옛 성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중국어 본문을 가로쓰기로 처음 출판한 책은 1815-1823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로버트 모리슨의 『화영자전』(華英字典,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이라고 일컬어진다. 1949년 이후 중국 정부는 가로쓰기를 채택하였다. 1956년 1월 1일에는 중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신문이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되어 발간되었다.

이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포함된 22종의 역본 중 12종은 관화체 중국어로 쓰였고, 나머지는 문리체 중국어로 쓰였다. 문리체(경서체, 고어체) 중국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단어가 단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문자와

단어 사이가 긴밀하게 상응되는 반면에, 관화체 중국어 혹은 현대 중국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중국어 단어가 두 자 혹은 그 이상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한 문자는 형태소로 여겨지는 한 가지 음절에 종종 상응하게 된다. 가장 많은 수의 현대 중국어 단어는 온라인 종합 중국어사전인『한어사전』(*Hanyucidian* 漢語辭典)에 수록된 것으로 80,000자의 문자로부터 만들어진 370,00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전들은 56,000자 정도의 문자를 수록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2,000자를 해독하면 글을 읽고 쓰는 일에 불편함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짐작하겠지만 문리역 성서는 관화역 성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자를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1919년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은 1,000,000자인데, 1919년 중국어 심문리역 화합본은 820,000자에 불과하다. 비록 통속어로 쓰인 소설들이 이미 17세기부터 존재하기는 했지만, 문리체 중국어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어에 있어서 문학적 표준이었다. 그러나 1919년 5·4운동 이후에 실용주의 개혁자 후쓰(Hu Shih 胡適), 좌파주의자 뤼쉰(Lu Xun 魯迅) 등 학자나 지성인들이 통속 중국어를 사용하기를 권장하면서, 소위 이 백화(白話) 형식이 널리 중요하게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출간된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이 놀랄 만하게 성공을 거둔 것은 우연이 아니었으며, 바로 이런 중국의 문학적 상황에서 적절한 '카이로스'의 때를 만났던 것이다.

3. 디지털화 과정

디지털화의 전 과정은 입력을 하고 교정을 본 다음 '파라텍스트'(ParaTExt) 곧 텍스트 자체를 넘어선 의미나 해석이 올바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세 과정은 지속적으로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정 과정이 제일 힘들고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교정 과정은 종종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고 임금도 낮게 지불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일이기에, 4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집중력을 쉬이 흩트려 버린다. 어떤 교정자는 그녀가 한 시간 반 동안 집중하여 교정을 보고 난 다음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는 보고를 하였다. 집중력의 감퇴, 신체적 피로 이외에도 지속적인 머리 흔들림이 이 교정의 결과로 오는 폐해일 수 있다. 한 교정자는 출력한 원고를 접어서 저본이 되는 그림 파일과 수직으로 각 행을 맞추며 작업하기도 했다. 이것은 비록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종이접기에

소비하기도 하지만 나름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같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제2단계에 접어든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젊은 동료들과 일련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단조롭다는 일의 특성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오래 교정자로서 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붙잡아 두기가 매우 어렵다. 본래 성경 본문이 입력된 다음 두 차례의 성공적인 교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 파라텍스트 과정으로 넘어갔었다. 그런데 후에 이 작업 모델은 수정되었다. 먼저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성경 본문을 입력한 다음 이 둘을 파라텍스트를 사용하여 정오를 비교하였다. 그 후에 한 차례 교정을 하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파라텍스트를 사용하여 의미나 해석이 올바른가를 검토하였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 교정 결과를 살펴보면, 입력 자체에서 실수가 많이 덜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효율이 높다 하겠다. 교정자들에게 좀 나은 양질의 성경 본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파라텍스트를 사용하는 기본 체크를 선행하는 것이 좋다 하겠다.

문자인식 소프트웨어는 이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제한적인 공헌을 할 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자인식 소프트웨어는 세로쓰기 인쇄물도 능히 인식할 수 있지만, (세로쓰기 가운데 있는) 성경 절수 표시나 고유명사에 그어진 밑줄이나 본문 상단에 표기된 세부 설명 등 페이지 레이아웃의 특징들이 문자인식 과정에 “배경 소음” 곧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지우는 일에 소비되는 시간이 문자인식 기술의 공헌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다.

4. 디지털화의 목표(Skopos)와 당면 과제

모든 본문을 디지털화한다는 것이 인쇄물로 발간된 본문의 형태나 레이아웃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한 본문 재현은 본문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만 수행될 수 있다. 모든 본문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내용을 바르게 잡아낸다는 것이다.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있어서 입력과 교정을 인쇄물에 발간된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조정 혹은 타협조차도 불가피하다 하겠다. 따라서 성경 본문을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Skopos)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중국어는 그 철자법이 매우 복잡함으로 악명이 높다. 74,605자를 수록한 유니코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Unicode CJK) 유의어 사전조차도 이 중국어 옛 성서의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는 충분치가 못하다. 이것은 특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차용한 말 때문에 그러하다 하겠다. 이런 외래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번역자는 음역에 근거한 새로운 표현이랄까 신조어를 만들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조어는 유니 코드가 아닌 신조어(neologism)이기 때문에, 문자의 다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AB]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한다.[5] 이 경우 한 가지 새로운 문자를 생성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새로 생성되는 문자가 외래어임을 표시하기 위해 왼쪽 A부분에 口자를 넣고 오른쪽 B부분에는 다른 문자를 넣어 발음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이다. "호산나"는 唕[口撒]哪 *hé sā nǎ*로 쓰여졌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咿唎、咿唎、啦嗎 [口撒][口駁][口大]呢 *Yī lì, yī lì, la ma sā bó dà ne*로 표현되었다. 그런데 이런 외래어들은 중국어 화합본에 있어서 역본마다 다른 번역자가 작업하였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랍"(cherub/cherubim)은 심문리역 화합본에는 基路伯으로, 천문리역 화합본에는 嗪嚕[口氷]으로, 관화역 화합본에는 嗪嚕[口伯]으로 번역되어 있다.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20여개 정도의 신조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로 장차 독자들의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중국어 철자법이 표준화(혹은 현대화)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앞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중국어 문자의 간체화는 이미 1950년대 이전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중국어 초서체(草書體)로 쓰인 간결한 표현을 이 범주에 넣는다면, 아마도 기원전 3세기 진나라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한 문자에 서로 다른 수많은 이체자(異體字)가 생성되었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이체자들 중 일부는 생소하게 느껴져서 사라졌고, 일부는 지금까지 남아 현대 인쇄물에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화하고 있는 중국어 옛 성서에는 한 간행물 안에 한 문자인데도 서로 다른 여러 이체자로 표기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為/爲; 羣/群; 隣/鄰; 産/產. 또한 왼쪽에 위치한 부수 가운데 氵/氵처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도 여럿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決, 減, 淨, 況, 沖, 湊 대(對) 決, 減, 淨, 況, 沖, 湊. 이 범주에 속하는 문자만도 수백 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러한 이체자들 가운데 일부는 却, 脚처럼 간체로 받아들여지고, 卻,

5) [역자주] 새로운 형성자[AB]를 만드는 원리와 유사하다.

腳처럼 번체의 형태로 받아들여진 것들도 있다. 이 논문을 읽는 서양 독자들은 입력 자판의 종류에 따라 중국어 문자의 입력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니코드를 따르는 중국어 문자도 문자의 타이핑이나 배열에 있어서 입력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대 독자들이 이 디지털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체자로 문자를 표준화하기로 하였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에서 있어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것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 것은 이 디지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성경 분문을 찾아 읽고 검색하고 아마도 다른 (중국어) 역본들과 비교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문자의 서로 다른 이체자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원칙을 모든 성경 본문에 적용하지만, 두 역본만은 예외로 두기로 하였다. 즉 러시아 정교회 역본(신약 및 시편, 1910)과 중국어 관화역 화합본(1919)인데, 이 두 전통적인 성경 본문은 지금도 그 공동체(러시아 정교회 중국교회와 개신교 중국교회)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그 독자들이 지금도 그 문자가 가능한 한 최소로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있어서 다소 적용된 표준화 작업은, 누락된 성경 절수를 제공하거나 구두점을 조정하거나 혹은 고유명사를 표시하는 밑줄 긋기를 일정하게 통일하는 일 등 레이아웃을 조금 더 양질의 것으로 제공하려는 시도들이다.

5. 결론

중국어가 컴퓨터 기술을 만날 때, 거기에는 항상 여러 도전들이 있다. 이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중국어 옛 성서의 디지털화를 쉽게 고려할 수 없었던 이유일 것이다. 여기 22종의 중국어성경의 번역이라는 것은 지난 200여 년 동안 중국 본토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번역자들의 삶의 최정점에서 이루어낸 고도의 지적 산물인 것이다. 이 디지털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이들 번역자들의 유일무이한 수고에 대한 헌사로서, 이제는 전 세계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 결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자문위원 중 한 분인 케니 왕(Kenny Wang) 박사는 이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의미 부여를 하였다.

영적인 영역 이외에도 이 중국어 옛 성서 번역은 구어체와 문어체 중국어에 소중한 통시적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서양과 기독교와 중국 사이에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교류를 수행하였다. 문화적 유산이며 하나님의 경건한 지혜인 이 옛 성서들이 지난 200여 년 동안 동면을 하며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디지털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인해 처음으로 사람들은 전례 없이 이 보배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이 논문이 발간될 무렵[6]에는 이 제2단계 사업의 22종 중국어성경 역본(성경전서 혹은 신약전서) 중 대부분의 전체 본문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성서도서관에 탑재되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유버전(YouVersion)이나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앱을 통하여 이 성경 본문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로의 최종 목표는 1950년대 이전에 발간된 현존하는 33종의 온전한 중국어 신약전서 혹은 성경전서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성서번역사, 중국어 성서, 성서번역, 디지털화.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Chinese Bible, Bible translation, digitization.

(투고 일자: 2019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22일)

6) [역자주] 이 논문은 *The Bible Translator* 68:1 (2017)에 실렸다.

<초록>

중국어 옛 성서의 디지털화(1950년대 이전)

"중국어 옛 성서의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이제까지 시도했던 중국어 성서 디지털화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거대한 것으로 디지털성서도서관(DBL)의 후원 아래 2014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이 디지털성서도서관은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성경 본문과 인쇄본을 수집하고 인증하고 보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에 대해서는 웹페이지 https://thedigitalbiblelibrary.org/home/을 참조하라). 이 디지털화의 제1단계 사업은 2016년 4월에 끝났는데, 연이어 제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이 논문이 발간될 무렵에는 이 제2단계 사업의 22종 중국어 성서 역본(성경전서 혹은 신약전서) 중 대부분의 전체 본문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성서도서관에 탑재되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디지털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1950년대 이전에 발간된 현존하는 33종의 온전한 중국어 신약전서 혹은 성경전서를, 그것이 문리역(문어체/경서체) 성서이든 관화역 성서이든 간에 모두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집필 목적은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당면 과제의 도전을 받는지 밝히는 것이다.